

##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채집된 미기록 농어목 어류 2종에 관하여

한송헌 · 김맹진 · 송춘복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부

### 서론

농어목(Order Perciformes) 학치과(Family Gobiesocidae)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36속 120여 종이 알려져 있다. 학치과 어류는 작은 경골어류로 대부분 온대와 열대의 연안에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지며, 이들 어류의 배지느러미는 기저부에 부착하기 위해 가슴부위에서 흡판으로 변형되어진 특징을 갖고 있다(Nelson, 1994). 한국산 학치과 어류에 대한 보고는 현재 *Lepadichthys frenatus*와 *Aspasma ciconiae*가 있다(Kim et al., 2005; Chyung, 1977). 이번 채집된 어류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보고 되지 않은 종인 *Aspama minima*로 밝혀졌으며 이종의 형태적인 특징을 검토하였다.

또한, 농어목(Order Perciformes) 새다래과(family Bramidae)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6속 18종이 알려져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3속 3종이 알려져 있다. 이번 채집된 어류는 한국에서 아직 보고 되지 않은 종으로 *Taractichthys steindachneri*로 밝혀졌으며 이종의 형태학적인 특징을 조사하였다.

### 재료 및 방법

*Aspama minima*는 2005년 11월 25일 제주도 북제주군 함덕리 해양과환경연구소의 사육수조 내 해수순환 도중 들어온 어류 2미를 채집하였지만, 1미는 10 mm 미만이라 계측형질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Taractichthys steindachneri*는 2004년 12월 5일 제주도 동문시장에서 구입하였다. 이들 두 어류의 동정은 Masuda et al. (1984)과 Nakabo (2002)를 참고하였다. 계측형질은 1/20mm Vernier caliper를 이용하였고, 계수형질의 조사는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였다.

### 결론 및 요약

#### 1. *Aspama minima* (Döderlein, 1887)

비늘이 없고, 체색은 분홍색을 띠며, 꼬리지느러미를 제외한 체표 전부위에 불규칙적인 붉은 점이 존재하였다. 입에서부터 눈을 지나 뺨까지 갈색의 세로줄이 있었으며, 꼬리지느러미에는 가로의 황색줄이 있었다. 흡판은 두개이며, 전반부가 크다. 흡판에 있는 극조와 등지

느리미와 뒷지느리미는 각각 꼬리지느리미에 가깝게 위치하였다. 체장에 대한 비에서 두장은 30.91%, 두고는 12.40%, 두폭은 17.72%, 체고는 12.20%, 체폭은 15.16%, 문장은 7.09%, 안경은 5.51%, 양안 간격은 9.06%, 등지느리미 기점 거리는 74.80%, 뒷지느리미 기점 거리는 79.72%, 항문 거리는 56.89%, 홑판 기점 거리는 20.67%, 등지느리미 길이는 13.78%, 뒷지느리미 길이는 11.42%, 홑판 길이는 전반부 7.09%, 후반부 6.69%, 홑판 폭은 전반부 12.80%, 후반부 8.66%, 가슴지느리미 길이는 8.46%였다. 두장에 대한 비에서 두폭은 57.32%, 체고는 39.49%, 체폭은 49.04%, 문장은 22.93%, 안경은 17.83%, 양안 간격은 29.30%였다. 등지느리미의 연조수는 8개, 뒷지느리미 연조수는 6개, 꼬리지느리미 연조수는 15개, 가슴지느리미 연조수는 22개, 홑판의 극조와 연조수는 각각 1개와 4개였다. 두부의 sensory canal openings는 NC가 2개, PO 2개, LC 2개, PR 3개, MN 0개로 *Aspama minima*로 동정되었으며 이 종은 국명으로 '꼬마학치(가칭)'로 명명한다. 현재 이 종의 분포는 일본의 남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제주도 해안까지 서식범위가 확대 된 것으로 생각된다.

## 2. *Taractichthys steindachneri* (Döderlein, 1883)

몸은 측편형이고, 체고가 높은 난형이었다. 몸 전체에 큰비늘이 덮여있었고, 체색은 짙은 은회색을 띤다. 눈 위 등 쪽은 볼록한 외곽선을 갖으며, 등지느리미와 뒷지느리미의 대부분은 길며, 특히 전면부가 길다. 배지느리미는 매우 짧다. 가슴지느리미는 반투명의 밝은 회색을 띠며, 꼬리지느리미는 양엽형으로 말단에 가슴지느리미와 같은 색을 띤다. 체장에 대한 비에서 두장은 25.16%, 체고는 58.61%, 체폭은 19.35%, 문장은 4.27%, 안경은 장경 6.93%, 단경 5.60%, 양안 간격은 16.99%, 등지느리미 기점 거리는 40.17%, 뒷지느리미 기점 거리는 53.58%, 등지느리미 길이는 42.38%, 뒷지느리미 길이는 41.55%, 가슴지느리미 길이는 46.95%, 배지느리미 길이는 5.21%였다. 등지느리미의 연조수는 36개, 뒷지느리미 연조수는 26개, 꼬리지느리미 연조수는 24개, 가슴지느리미 연조수는 21개, 측선 비늘수는 38개로 *Taractichthys steindachneri*로 동정되었으며, 이 종은 국명으로 '제비다래(가칭)'로 명명한다. 이 종은 일본 중부의 사가미 만과 니가타 현에서 남동 태평양을 제외한 인도양의 온대, 열대지역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Chyung, M. K. 1977. The Fishes of Korea. Ilgisa, seoul, pp.1~727.(Korea)
- Kim, B. J., Y. B. Go, and K. Nakaya. 2005. First record of a Clingfish, *Lepadichthys frenatus*(Perciformes: Gobiesocidae), from Korea. Korean J. Ichthyol. 17(4), 255 ~ 257.
- Masuda, H., K. Amaoka, C. Araga, U. Uyeno and T. Yoshino. 1984. The fishes of the Japanese Archipelago. Tokai Univ. Press, Tokyo, 346 pp.
- Nakabo, T. 2002. Fishes of Japan with pictorial keys to the species, second edition. Tokai Univ. Press, Tokyo, Japan. 1749 pp.
- Nelson, J. S. 1994. Fishes of the world, Third edition. John Wiley & Sons, New York. v~xvii+ 1 ~ 615.